

심리적 외상으로서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방안 —가해자 피해자 심리이해를 중심으로—

전 요 섭*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방안을 다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친밀관계폭력,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실태와 피해(데이트폭력의 원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피해,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서는 원가족 폭력관계) 친밀관계폭력의 심리적 이해(가해자의 심리, 피해자의 심리), 친밀관계폭력 예방에 대한 일반적 입장,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을 다루었고 결론(요약, 논의, 제언)으로 마쳤다. 이 연구의 결론은 친밀관계폭력은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부부폭력, 자녀폭력)으로 나누이며, 데이트폭력이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친밀관계폭력은 심리적 외상 사건으로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폭력이 최초로 발생할 때 폭력 수용성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지지그룹을 형성하여 막아야 한다. 즉 지지그룹이란 가족, 친지, 친구, 경찰 등의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상담에서 친밀관계폭력은 명백하게 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친밀관계(연인,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져야만 하는 관계인데 폭력은 이에 반하는 행위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데이트 상대를 예비 배우자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배우자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돕는 배필로 여기고 상대방을 마땅히 존중할 때 성경적인 관계형성, 행복한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친밀관계폭력, 데이트폭력, 배우자폭력, 가해자-피해자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4일

* 성결대학교

I. 여는 글

미혼 남녀의 데이트는 결혼을 위해 자연스럽게 필수적인 교제의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성 간에 원만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를 자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해야 가능해진다(서혜석 외, 2011). 하지만 이성교제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호친밀도가 형성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배려하는 마음이 감소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힘의 우위를 점유한 자가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관철시키려고 완력, 폭력 등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Calsonm, 1991). 국내의 경우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며, 흉포화되는 시점은 데이트 초기부터는 아니며, 대부분 상대가 이별을 선언한 이후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부장적 인식(patriarchy)에 기인한 힘의 남용(abuse of power)이며, 애정, 존중과는 상반된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런 일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심리적 외상 또는 이에 준하는 충격을 받게 되고, 친밀관계가 파기되거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8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 DV)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8년 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은 10명 가운데 9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율로 볼 때 90%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다소 과장된 결과이거나, 폭력의 범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립했거나, 아니면 기술통계적 문제처럼 인식될만큼 대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최소 15% 정도, 최대 49% 정도) 등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이 2016년초 데이트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연인 간 폭력 테스트포스 팀’은 2017년 8월까지 6,919명을 적발 또는 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소라, 2017).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지만,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관계단절 우려 또는 수치심 등 다양한 이유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적어도 1년에 1만 명 정도는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15-40%로 집계되고 있다(Rickert, 2002). 국내 ‘여성의 전화’에서 집계한 통계로는 61.6%가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http://rimal23.tistory.com/336>, 2018.3.28.). 성폭행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데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4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ickert, 2002).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친밀관계폭력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경향성이 문제이다.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이를 수용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가정폭력, 즉 배우자폭력(partner violence: PV) 또는 자녀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데이트폭력이 결국 배우자폭력과 자녀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예측변인들을 제기하고 있다(우현진 외, 2017). 데이트폭력은 1회만 발생해도 그것이 심리적 외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다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Walker, 1992).

이 연구의 목적은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기독교상담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상담자들이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효과적 상담접근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를 감소,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상담학에서 심리적 외상 또는 폭력 자체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흔히 발견되지만, 친밀관계폭력(데이트폭력, 배우자폭력)을 기독교상담 입장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실태와 피해 및 가해자-피해자 심리 분석을 기초로 하여 성경적이고 기독교상담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심리적 외상으로서 친밀관계폭력

국어사전에 ‘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영어에서 폭력은 violence로 나타내는데, 이는 라틴어 *violentia*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뜻은 ‘힘’, ‘활력’, ‘권력’ 등을 의미하며 다분히 남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남성만이 폭력의 가해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위협적 행동이 폭력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행위의 주체는 주로 남성이었다. 또한 ‘힘’(force)이라는 것이 무조건 ‘악’(evil)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은 악한 힘으로 대변되며, 이는 결국 외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개인에게 다양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폭력의 의미는 ‘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 폭력은 βία(격심한 폭력 행위)와 διασείω(협박에 의한 갈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폭력에 의한 결과로서 ‘외상’(外傷, trauma, external wound)은 개인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가격(加擊, force)함으로써 신체적 안녕을 ‘위해’(危害, harm)하는 것인데, 가볍게는 고통을 야기하거나, 신체적 ‘상해’(傷害, injury)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이와 같은 일이 심리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 물리적, 신체적 외상과 비견되는 용어로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여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신체적’ 외상과 구별되는 용어로 ‘심리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심리적 외상이 물리적, 신체적 외상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폭행은 물리적, 신체적 외상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심리적 안녕에 위해를 가한 것이므로 사실상 모든 물리적, 신체적 외상은 동시에 심리적 외상일 수 있다.

또한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폭력 현장 등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을 때 그 자녀는 심리적 외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동기 부모의 폭력 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생애 초기에 모델링의 원천이 되어 성격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잠재성 및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49%가 이성교제 중에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Keefe, 1997). 이런 심리적 외상은 단순히 해당 외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지속적이고, 복합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상 사건에 따른 피해를 일컫는 상담심리학 용어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한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가 1980년에 발간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3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부터 불안장애의 하위개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질병명이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등록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3년에 출간된 DSM-V에서는 불안장애로 분류되었던 PTSD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Trauma and Stressor Related Disorders)라는 독립장애군으로 분류되었다. DSM-V에 명시된 심리적 외상의 기준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노출 및 목격을 경험한 자로 되어 있다(APA, 2013).

폭력에 의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면 고통스런 감정이든 즐거운 감정 이든 사건 이후 감정의 마비(alexithymia: 감정표현 불능) 증상이 초래되는 PTSD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alter, 1995). 더 나아가 만성적 성격 와해, 성격장애 등이 발생하여 전과 같지 않는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어도 그 가운데 대략 20% 미만의 사람들만이 PTSD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osha, et al, 2009). 따라서 심리적 외상과 PTSD는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기억 및 인식, 인지적 해석과 태도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루는 뇌와 신체, 정서적 반응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실태와 폐해

친밀관계폭력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며,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증가하는 범죄이다(Theobald & Farrington, 2016). 최근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매우 흥포화되는 추세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건만 보면, 연인의 집 방화(더팩트, 2015.5.30.), 연인의 부모 살해(더팩트, 2015.8.28.), 연인의 집에서 자살소동(헤럴드경제, 2016.2.5.), 온 몸에 휘발유 뿌려 협박(연합뉴스, 2016.2.12.), 연인을 납치, 감금(다음뉴스, 2016.2.24.), 연인의 자동차 파손(BBS, 2016.3.28.), 연인의 얼굴에 염산 투척(한국일보, 2015.12.27.; 주간현대, 2016.3.22.), 연인의 누드사진 유포(부산일보, 2016.4.1.), 연인의 얼굴에 담뱃불로 지짐(연합뉴스, 2017.5.12.), 연인의 손목을 칼로 그어 살인미수(2017.7.21.) 등으로 점차 흥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폭력시점은 이별 선언이 있은 후였다. 친밀관계폭력은 일반폭력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나타나지만, 그 상황이 연인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에서 독특성을 갖는다(Morgan & Wells, 2016). 즉 연인관계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용납된다는 점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결혼 후에 가정폭력, 즉 배우자폭력(부부폭력)과 자녀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비해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볼 때 데이트폭력 경험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Nicodemus, et al, 2011). 또한 친밀관계폭력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사건은 한 해에 적어도 50여명, 살인미수가 60여명이 발생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cch>, 2018.3.28). 친밀관계폭력은 애정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사랑싸움’(이른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라거나)이나 개인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친밀관계폭력을 논할 때 크게 네 가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의 범주를 다루게 된다(Straus, 2004). 친밀관계폭력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쉽고, 단순하게 발생하는 것은 언어적 폭력이며, 이에 따른 심리적 폭력이 아울러 발생한다. 신체적, 성적 폭력은 당연히 심리적 폭력을 초래하게 되어 세 가지를 주로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그 피해 양상도 다르므로 친밀관계폭력의 네 가지 양태를 고려해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의 용어

친밀관계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시점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결혼 전 교제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하나는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서 배우자폭력과 자녀폭력으로 구분한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영어권에서는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이라고 하는데 데이트라는 외래어는 굳이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도 그대로 사용한다. 또는 우리말로 ‘혼전폭력’(courtship violence: CV)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영어권에서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구혼기폭력’ ‘구애폭력’ ‘연인폭력’ ‘연애폭력’ ‘교제폭력’ ‘이성교제폭력’ ‘치정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표기, 사용되고 있다(박현정, 2015). 근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폭력’(violence)이라는 용어 대신 이 문제를 사회문제화하여 심각하게 다루려는 의도로 ‘테러’(terror)라고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디 테러는 정치적인 개념으로써 통상 폭력의 개념을 넘은 잔인성 또는 보복 등을 함의하고 있다(Wright, 2010).

또한 가정폭력은 넓은 범주로 볼 때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적 행위를 뜻한다. 최근 국내에 새롭게 수립된 범죄 개념으로서 부부 간에 완력과 강압에 의해 발생하는 이른바 ‘부부 성폭행’(정상적인 혼인관계

에서도 배우자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부부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년 2월[2008도 8601]에 있었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Diana Russel(1982)은 “결혼 속의 강간”에서 아내가 21%가 이 문제에 노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친강간(incest)을 비롯, 다양한 성폭력 행위, 자녀 폭행 및 폭력이 포함될 수 있다.

2) 데이트폭력 및 부부폭력의 실태와 폐해

(1) 폭력의 양상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가볍게는 밀치는 것으로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양상은 신체 특정부위를 비틀거나, 악력을 이용하여 움켜쥐거나, 힘껏 누르는 것, 목을 조르는 것,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것, 발로 치거나 밟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때리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물어뜯는 것,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행위 등이 있다. 그밖에도 직접적이거나 신체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려보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하려는 시늉, 주먹이나 발로 벽을 치는 것, 문을 세게 닫는 것,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상대의 선호, 기호품을 파손하는 것, 분노의 얼굴표정을 통해 위협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것들은 신체적 접촉에 의한 위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폭력으로 인식될만한 양상들이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전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포옹, 애무, 더 나아가서 성기 등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의 성기 및 성행위 촬영을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 또한 성기 삽입 등의 성 행태가 나

타났다. 하지만, 역시 직접적이거나 신체적인 성 접촉이 없었어도 신체 특정부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본다든지, 남성들은 주로 시각을 통해 성적 매력을 감지하고, 자극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여성을 엿보는 것(voyeurism: 관음 행위, 용변 및 환복 현장의 목격 등), 성적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표현, 성기의 노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권세연 역, 2015). 2018년 서울특별시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성적 접촉 양상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신체를 만지는 것(44.2%), (자신의 의사에 상관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지는 것(41.2%)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의 범주에 있어서, David L. Stader(2011)의 정의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간 서로 동의, 합의되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행하는 애정표현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데이트 폭력 현황

데이트폭력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물리적 힘의 우위를 차지하는 남성으로서 주로 강압적인 성 접촉 등 신체적 폭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폭력의 3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정폭력의 90%가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친밀관계폭력에서 많게는 48.9%가 신체적 폭력을 당해 본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밀관계폭력의 성별 발생빈도에 있어서 남성들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명백한데, (특히, 성관련폭력은 절대 다수가 남성에 의해서 발생된다. 친밀관계폭력에서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성적 문제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며, 가족과 자녀상대의 폭력범죄 91%가 남성들에 의해 범해진다(권세연 역, 2015; 신혜섭, 양혜원, 2005) 유엔에서는 ‘violence against women’ 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본전제가 남성에 의한 여성 폭행

이라는 개념을 저변에 두고 있다.) 이는 남성들의 성 불평등 및 성 차별에 기인된 인식이며 행위라고 볼 수 있다(Mercy & Tharp, 2015). 미국의 경우, 친밀관계폭행에서 남성 가해자 비율은 84%, 여성 가해자는 12%, 기타 4%로 밝히고 있다(Johnson, 2015). 하지만, 근래 여성들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서경연, 2003).

일반폭력과 데이트폭력은 폭력 자체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20-30대에 집중(75%)되어 있는 것이 특징일 수 있다. 물론 데이트를 20-30대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과 관련하여 이성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의 친밀관계가 형성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서 대개 은밀히 진행되고 만성화된 구조적 특징이 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데이트폭력'이라고 그 은밀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데이트폭력으로서 심리정서적 폭행에 대한 통계는 편차가 심한데 약 20% 정도된다는 분석으로부터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물리적 폭력은 약 20-30% 정도, 성적 폭력은 15-2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Stader, 2011).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으로서 강제적인 성폭행은 약 8.5%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신혜섭, 2007).

언어적 폭력으로는 직접적으로 모욕, 비난 또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 앞에서 굴욕적 언어, 위협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Draucker & Martsof, 2010). 고함을 지르거나 욕,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 등 언어를 통한 심리정서적 폭력도 신체에 가하는 위해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는데, 이를테면 음주, 약물경험, 학력, 가족관계, 부모의 애정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이전 폭

력경험, 거주지역, 교제기간, 인종 등의 변인에 따라 데이트폭력 고위험 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약물이나 마약을 한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rtz, et al., 2004). Ryan C. Shorey(2015) 등은 데이트폭력과 대마초 약물 간의 관계를 분석했고, Paul D. Nicodemus, Jessica A. Porter와 Patricia A. Davenport(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술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는 코카인, 헤로인 등 약물이나 마약 자체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강한 법적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음주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은 Vangie A. Foshee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증가하여 데이트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Foshee, et al., 2016).

미국의 경우, 남성의 30-40%, 여성의 27-34%가 데이트 중 음주상태에서 폭력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Rickert, 2002). 이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르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양난미, 2009;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그래서 Shorey(2015)는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에 대한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울러 감정조절 및 분노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인식분석을 보면,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경우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89.2%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 제

정되어 있지만, 친밀관계폭력(데이트폭력 및 배우자폭력)이 발생했다 하여 모든 사안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친밀관계폭력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3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 (反意思 不罰罪)에 해당되어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친밀관계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연인 간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거나, 은폐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친밀관계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영역에서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김구슬, 2017).

3)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서는 원가족 폭력관계

데이트폭력은 결혼 전 이성 간의 데이트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데이트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때 결혼 이후에도 나타나는 부부 성폭행, 배우자폭행, 자녀 성폭행, 자녀폭행 등 결국 광범위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 할 수 있다(Theobald & Farrington, 2016). Vaughn I. Rickert(2002)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정소영, 2011).

단순하게 달리 표현하면 성장기에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남성 가해자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폭력을 당한 것을 목격한 외상 경험에 의해 데이트폭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외상 경험

을 가진 자녀들이 성장하여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나이든 형제(누나, 오빠, 언니, 형)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서경현, 2011; 박미랑, 2009).

여성 가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외상 경험, 그리고 형제 또는 자매로부터 폭행을 당한 외상 경험 순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다(Rickert, 2002).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폭력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외상 경험자들이 장차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상담 및 심리치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폭력은 부모에게서 관찰하거나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문제를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원가족의 문제와 연결해서 고려해야 한다.

원가족 관계에서 이해, 사랑, 존중받아 본 경험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또는 이성을 이해, 사랑, 존중하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가족 관계의 미분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분화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소통의 단절 및 부재로 인해 가족 간 감정표현의 억제, 불능의 경험은 가정 밖에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비롯하여 대인관계적 문제를 야기한다. 폭력 행사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재이다(Cooper-White, 2011). 가족 간에 입장과 견해가 다르거나 갈등 상황에서 설득적 언어를 통한 대화 경험이 부재한 원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이 데이트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성적, 타협적, 대화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서부터 형성된 정서적 미

성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예방차원에서 논의한다면 가족 내에서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완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해하고 설득적인 소통의 경험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데이트폭력, 장차 가정폭력(배우자폭력, 자녀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 대하여 공격성향을 보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성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동기에 경험한 심리적 외상이 있었다(Herman, et al., 1989).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기 체벌경험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69%가 아동기 체벌경험이 데이트 상대방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동기 체벌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9%나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해결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7. 12. 7일자).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 경험은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이다(안현의, 2005). 원가족으로부터 기독교교육을 받고 신앙으로 양육 받은 경우는 절대로 친밀관계폭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의 비성경적 입장을 가치관으로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심리적 이해

1) 폭력 가해자의 심리

데이트폭력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원인은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볼 수 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근원은 같은 정서이다. 우월감의 심리저변에는 자신이 강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힘의 논리로써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적 관계이다. 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성비가 남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의 피해는 미국의 경우, 남성의 33%, 여성의 67%로 나타났다(Rickert, 2002). 여기서 볼 때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폭력적이라는 사실이 연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몽골과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서경현, 2011). 신체구조나 물리적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이 가해자가 된 경우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Foshee, 2005). 따라서 폭력의 유형에 따라 성별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데이트폭력의 78-85% 이상이 백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을 보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우월감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Schrag, 2017).

또한 우월감과는 반대개념처럼 보이지만, 열등감의 발로로 폭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Lynn Magdol(1997) 등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자 특성을 분석해 볼 때 직업이 없거나, 학력이 낮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며, 비행 경험이 있고, 알코올과 마약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힘의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열등감을 폭력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완력, 폭력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Foshee, 2005).

친밀관계폭력은 심리적으로 질투심과 소유욕에 기반을 두고 상대방

을 조작(manipulation), 조정, 통제(control)하려는 의도가 지배적이다 (Cooper-White, 2011). 대부분 데이트폭력의 특징점이 이별 통보를 받은 시점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소유욕의 좌절이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인격체 등으로 보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본인 스스로도 인간된 품위를 손상시켜가면서 상대방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며 죄악이다.

하지만, 폭력 가해자들의 인지는 왜곡되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할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심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폭력은 폭력 자체로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이를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2) 폭력 피해자의 심리

데이트폭력은 이상적인 친밀관계 및 연인관계에 대한 기대와는 너무나 모순된 상황으로서 결코 친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가볍게는 이 일로 인해 당황, 혼란, 갈등, 후회, 두려움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폭력 피해자(희생자)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우울이다(Shorey, et al., 2011). 우울감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애정 및 신뢰상실,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불신감, 불안감, 불쾌감, 모욕감, 적대감, 수치감, 소외감 등 온갖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는 외상 경험으로서 자아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지며, 자아개념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Ackarda & Neumark-Sztainer, 2017). 이를테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내가 그런 대상으로 보여줬다는 말인가?’ ‘내가 어디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존재 밖에 안 되었는가?’ ‘나는 학대를 당한 것이야!’ 라는 생

각을 갖게 한다.

친밀관계폭력은 곧 이어 PTSD로 이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Theobald & Farrington, 2016). 여성은 남성에 비해 3배 이상의 강한 심리적 후유증으로서 PTSD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Makepeace, 1981). PTSD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 정서의 내현적 기억에 압도되어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의 문제들이 발생한다(Figley, 1988). 이는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심리적 외상의 정도도 다를 수 있는데, 원치 않는 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생각들의 침습이나 회피행동 등의 강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vuz, et al., 2012). 일반적인 PTSD를 겪는 사람들 가운데 27.3%가 강박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차이가 없다(Rufer, et al., 2006).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의 72.5%는 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현진 외, 2017). 이는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력 허용도는 가해자의 반성을 제거(de-reflection)하게 하며 나아가 강도 높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현상이다. 이처럼 폭력 피해자가 모순된 양가감정(ambivalence)을 많이 느끼게 됨으로써 심리정서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에 피해가 초래된다. 이를테면 애정과 미움의 혼재된 정서, 친밀과 분리, 기대와 실망, 두려움과 의존적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심리정서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폭력 피해여성 가운데 이런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여자니까, 여자인 내가 참아야지!” “남자친구에게 잘 맞춰 주었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다 그렇지!” 등 순응적, 순종적, 의존적, 허용적 태도로 인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일부 신앙이 돈독하게 비

치는 피해 여성가운데 이런 폭력에도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격적 침해와 폭력을 당하면서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일부는 자신이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을 갖는 기이한 경우들도 있다. 이를테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내 잘못도 틀림없이 어느 정도 있지?” “내가 좀 더 남자친구에게 잘 대해 줘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화났을 때 한 행동인데 뭐, 나도 화나면 물건 집어 던지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남자친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건 사실이야!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어!” “누구든 잘못하면 벌은 받는 거 맞잖아!”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한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숙고하여 자신이 폭력의 원인 제공을 했거나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여 문제를 드러내지 않거나 은폐, 축소, 합리화 또는 정당화가 피해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혹 자신에게 다소 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치리 및 처벌권을 상대이성이 가지고 있다는 비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친밀관계폭력 예방에 대한 일반적 입장

친밀관계폭력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외상상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지체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외상적 기억이 고착되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H. Norman Wright(2010)는 시멘트 공사에서 양생과정으로 비유했는데 그 모양을 바로 잡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굳어져서 나중에는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재구성(reframing)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친밀관계폭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 'flight' (달아나기)의 대응방식을 취했을 때, 그 순간에는 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폭력 의도를 전혀 다룬 것이 아니며, 잠재적으로 향후 폭력 발생의 개연성 및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reeze' (얼어붙어 당하기)는 상대방이 폭력을 드러낼 때 두려움에 압도되어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폭력에 대한 수용성을 드러낸 것으로 오해 또는 확신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지그룹을 확보하여 폭력을 반드시 공론화시켜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여성 가운데는 신고를 하면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이혼으로 치닫게 될까봐 결혼관계를 유지하고자 신고하지 못하고 폭력의 고통을 수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친밀관계폭력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공통점은 일종의 착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연인(또는 부부)이라는 이유 때문에 폭력 행동이 가능하다는 인식, "폭행을 가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갖는 것이며,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수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인데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Vangie A. Foshee(2005)는 친밀관계폭력은 교육에 의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성 역할, 갈등관리, 폭력의 개념, 데이트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를 교육함으로써 이것을 예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시하기는 여의치 않다. 이런 제

안은 극히 이상적인 것으로서 국내의 경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누가 주체가 되어 이런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지 등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Michael P. Johnson(2008)은 ‘폭력 저항’(violence resist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데이트폭력이 나타날 시, 폭력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하는 것과 자기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동태복수법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정신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방어적 폭력’(defensive violence)이 6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어적 폭력은 가해자의 성격과 폭력의 양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정당방위로부터 폭력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최초에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였으나 후에는 가해자-가해자 관계로 바뀌어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렵고 쌍방의 책임이 될 수도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Johnson(2008)은 여성이 남성에게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제압하려는 가해자에게 더 큰 폭력과 예상치 않은 부상과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폭력적 저항으로써 현장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배우자폭력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여성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밝힌 바 있다. Johnson(2008)의 연구는 10년 전인 2008년의 연구결과이기도 하지만 후진국이 아닌 미국에서 여성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방비상태로, 무기력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연구가 다소 기이하기도 하다. 배우자폭력의 경우, 폭력현장을 떠나는 것은 일시적이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

적, 종속적 구조로 인해 가정에 복귀했을 때 또 다시 제압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다(Johnson, 2008). 가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서 더욱 위협을 가하거나 배우자의 통제 범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폭력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친밀관계폭력은 일반폭력에 비해 관심도가 낮거나 그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데이트폭력이나 배우자폭력이 일반폭력과 다르지 않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싸움으로 보아 주변의 무관심 또는 공권력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폭력에 비해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과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Stader, 2011).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친밀관계폭력에 대하여 대대적인 예방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친밀관계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계몽운동이 있다면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Cooper-White, 2011).

남성과 여성은 애정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상이하다. 남성은 애정을 생각할 때, 그 표시로 육체적인 면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정복감마저 갖게 되는데, 이런 요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내 데이트폭력 추방 캠페인 “너(남성)는 사랑이라 부르고 나(여성)는 폭력이라 부른다!”는 문구를 통해 그 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Rickert, 2002). 가정폭력은 미국의 경우 1964년부터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을 일컬어 ‘매 맞는 아동 증후군’ (battered child syndrome)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매 맞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Walker, 1979). 결국 데이트폭력이라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악행일 수밖에 없다. 이미 발생한 친밀관계폭력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력발생 이후, 초기대응을 잘해야 하며, 가급적 빠른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Ackarda & Sztainer, 2002). 데이트폭력을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나중에 흉포한 폭력으로 악화될 수 있다. 최초 폭력이 나타났을 때 폭력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애정관계 때문에 문제 삼지 않거나 가볍게 넘기려고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 수용성은 가해자의 폭력을 강화시킨다. 가해자는 과거의 폭력수준은 이미 수용이 된 것으로 착각하여 폭력이 반복되거나 더 심한 폭력이 나타난다. 폭력의 구조는 가해자의 폭력행위, 피해자의 항의,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의 용서, 또 다시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반성, 피해자의 반복적인 항의와 용서가 순환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초 폭력이 나타났을 때 연인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당황하면서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대부분 흉포화된 폭력은 이별시점인 것을 분석해보면 이별에 대하여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데이트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이별에 대한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폭력 등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 공포상황이 발생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를 영어단어들의 첫 자를 따서 이른바 ‘3fs’라고 하는데 (1) 정면으로 마주하여 폭력을 다루는 것(fight) (2) 폭력의 현장을 피하고, 떠나버리는 것(flight) (3) 폭력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현상(freeze) 등이 나타난다(Webster, et al., 2016).

Pamela Cooper-White(2011)는 친밀관계폭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interchangeably’라는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 즉 폭력의 최초 상황은

누군가는 가해자이고, 누군가는 피해자(또는 희생자) 구조였을 것이지만 폭력을 맞받아치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고 때림으로써 폭력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interchangeably) 상황이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요구에 대한 순응, 복종)이 없음을 깨닫고 폭력을 자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더욱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대부분 폭력 가해자는 폭력이라는 공격적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폭력 예방의 한 차원이 될 수 있다.

친밀관계에서 첫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곧 바로 이를 문제 삼아야 해결이 수월해진다.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폭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가해자로 하여금 사태를 직면시키는 것이다. 즉, 피해자는 폭력 사실을 가족, 친척, 친구, 성직자, 전문가 등에게 알리거나 관련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Johnson, 2008). 이를 '지지그룹' (support group)형성이라고 하는데 이후 가해자로부터 통렬한 반성 및 회개와 아울러 재차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약속이 있다면 관계의 회복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또는 폭력적 공격성이 조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계 자체를 단호하게 단절, 해소하고 떠나겠다는 통보와 그렇게 하는 것이 폭력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다(Foshee, 2016). 많은 경우에 폭력은 싫으나 헤어지는 것은 더 싫어서 폭력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관계에 강박적이

며 지속적으로 집착하여 친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시키기에는 그동안 교제를 위해 투자한 것(시간, 금전, 노력, 추억 등)이 너무 많고, 한 번 또는 몇 번의 폭력으로 관계단절까지 고려하는 것은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이로써 이성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실패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관계중독이나 아동기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Johnson(2008)는 친밀관계폭력으로서 배우자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상당수는 폭력 현장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자살적’(suicidal), ‘피학적’(masochistic)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3fs’ 가운데 ‘freeze’에 해당된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하여 배우자폭력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빈번하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형성되어 후에 폭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소멸되고 적응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Johnson, 2008). 폭력을 문제 삼지 않고 견디면 나중에는 그러한 순응의 태도가 더 큰 폭력을 야기하게 되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 폭력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친밀관계폭력이 나타났을 때 가벼운 폭력일지라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에 대한 수용성 또는 허용성이 높아질 경우, 결국 성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폭력이 증가하게 될 것을 예측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정소영, 2008). 2018년 서울특별시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운데 46.4%는 이를 수용하고 상대방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17.4%는 가정폭력(배우자폭력, 자녀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한국일보, 2018년 1월 30일자). 일단 발생된 데이트폭력은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의 폭력 수용성 또는 허용성에 대한 가해자의 강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5.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1) 성경적 지침

성경에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이나 그것을 주제로 다룬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 하여 친밀관계폭력에 대하여 성경이 인정한다거나 그렇게 유추 해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말씀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가장 근접한 내용은 창세기 34장이다. 창세기 34장 1-12절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아몰의 아들 세겔에게 성 폭행을 당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이 때 세겔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디나를 연연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즉 세겔은 사랑을 했다고 했으나 디나는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세겔은 디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혼인하고 싶어 했으나 진정으로 사랑하여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다면 절대로 폭력, 폭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런 관계에서 결혼한다면 결혼생활도 원만하기가 어렵다. 이 내용을 기초로 볼 때 근래 발생하는 데이트폭력과 그 내용이 동일구조는 아니지만 애정관계를 성 행위로만 이해하려는 남성들의 성 성향과 결혼 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나 현대나 동일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에는 여성 포로에 대하여 애정을 느끼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노예(포로)와 결혼하고 싶을 때 상대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를 존중하여 그 부

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서야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살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고, ...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기쁘게 생각되지 않을 때 폭언, 폭행을 하는 현대 친밀관계 폭력은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교훈에 반하고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내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 것을 가르친 율법서(신 22:13-17)가 신약 또는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거나 무시되어 아내가 싫어졌을 때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폭행을 해도 좋다고 해석할리 만무하다. 근래 친밀관계폭력 가운데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이별 또는 이혼 즈음에 잔인하고도 끔찍한 폭력이 난무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신명기의 내용은 이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밀관계폭력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적어도 이것은 그리스도 닮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며, 성경에 명시된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2) 기독교상담적 접근

기독교 신자가정의 배우자폭력에 대한 국내 통계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여성 신자의 17%가 남편으로부터 배우자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eergaard, et al., 2007). 신자들도 이런 폭력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에서 성 폭행 등의 강제적 간음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원망, 비난, 혐오, 저주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지만 신앙을 가진 경우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신정론(神正論, theodicy)에 대한 의구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은 신 분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할 때 하나님

은 다 지켜보고 계셨나요?” “왜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지요?” “그 현장을 보고 계셨다면 즐기신 건가요? 아니면 뭐가요?” 망언 같지만 피해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정론의 질문으로 항변한다. 상담자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섭리가 있을 겁니다”라고 선불리 위로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슬픔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고,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과정은 상담초기에 필요한 것이다. 선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상담초기에 서둘러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상담학자 Wright(2010)는 이런 경우 초기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hyper-alertness), 과다 각성(hyper-arousal), 과다 경계(hyper-vigilant)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인체의 경고 시스템 작동에 이상(신경증, 정신증을 포함한 PTSD)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 Wright(2010)는 마치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로 조형한 후, 초기에 바로 잡지 않고 양생과정이 끝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고착된다고 비유했다. 물론, 심리정서적인 면을 콘크리트에 비유한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초기대응에 대한 강조로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가 울분으로 인해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려하지만 이런 동태복수의 개념이나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으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킨다. 기독교 신자들은 비폭력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비폭력 대화를 통해 서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성숙된 태도를 갖추도록 피해자에게도 상담할 필요가 있다. 즉, 폭력이 아닌 언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언어적 대응에 있어서도 비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폭력적 언어라는 것은 표현적이고, 소통적이고, 설득적이다(김준수, 2015). 성경에 나타난대로 기독교가 비공격적이라는 것은

친밀관계가 비폭력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친밀관계폭력이라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지만 상담지원을 통해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독교상담에서 외상 피해자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아울러 기독교신앙 입장에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의미전환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이우재, 2015).

Ⅲ. 닫는 글

이 연구는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상담자들이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상담에서 그 이해를 확산하고, 효과적 상담접근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감소,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친밀관계폭력은 심리적 외상이며 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친밀관계폭력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사건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살펴보았다. 특히, 원가족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친밀관계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가해자로서 악순환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즉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폭력(배우자폭력, 자녀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폭력 가해자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발로에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며 상대방을 인격체나 하나님의 형상 또는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소

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폐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fight, flight, fright의 방식(3fs) 가운데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fight가 바람직한 태도임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친밀관계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데이트 시점에서부터 비폭력적 대화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친밀관계폭력(데이트폭력, 배우자폭력, 자녀폭력)에 대한 성경적 사례나 그 기초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폭력으로써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이고 비성경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였으나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주제의 연구개념을 좀 더 외연하기 위해 데이트폭력과 기독교상담 요소 간의 매개변인을 찾고 그 관계를 분석하여 인과관계 또는 영향력 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독교상담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신앙을 교육받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이 연구와 어우러져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구슬 (2017).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3), 131-173.
- 김준수 (2015). 비폭력대화의 분석과 기독교상담적 적용 연구. **복음과 상담**, 23(1), 137-163.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미랑 (2009).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3(2), 193-227.
- 박현정 (2015).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2(2), 499-521.
- 서경현 (2003).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사회문제**, 9(2), 61-78.
- 서경현 (201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219-243.
- 서혜석, 공은숙, 김정은 (2011).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7, 103-129.
- 신소라 (2017).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음주습관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9(6), 179-205.
- 신혜섭 (2007). 데이트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2(2), 149-170.
- 신혜섭,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1), 299-323.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54.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 22(3), 315-335.
- 이우재 (2015). 외상후 성장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23(2), 291-325.
- 이은아 (2015). 트라우마 상담 모형. **상담학연구**, 16(3), 581-602.

-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데이트 언어폭력의 관계: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653-3672.
-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 Ackarda, D. M., & Dianne, N. S. (2002).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 455-47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alson, B. E. (1991). Outcomes of physical abuse and observation of marital violence adolescents in plac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526-534.
- Cooper-White, P. (2011). Intimate violence against women: Trajectories for pastoral care in a new millennium. *Pastoral Psychology*, 60(6), 809-855.
- Draucker, C. B., & Martsof, D. S. (2010). The rol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3(3), 133-142.
- Fosha, D., & Siegel, D. J. (2009).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Affective neuroscience. Development & Clinical Practic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oshee, V. A., Bauman, K. E., Ennett, S. T., Suchindran, C., Benefield, T., & Linder, G. F. (2005). Assessing the effects of the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afe Dates" using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ing. *Prevention Science*, 6(3), 245-258.
- Foshee, V. A., Gottfredson, N. C., Reyes, H. L. M., Chen, M. S., David-Ferdon, C., Latzman, N. E., Tharp, A. T., & Ennett, S. T. (2016). Developmental outcomes of using physical violence against dates and pe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6), 665-671.
- Hawley, A., Black, B., Hoefer, R., & Barnett, T. M. (2017). Domestic violence shelters' efforts to prevent teen dating violence: A national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23(4), 520-529.
- Herman, J. L., Perry, C., & Van der Kolk, B. A. (1989).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4), 490-495.

- Johnson, A. J. (Ed.). (2015). *Religion and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ew York: Springer Science.
- Johnson, M. P. (2010). *A typology of domestic violence: Intimate terrorism, violent resistance,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Kurtz, S. P., Surratt, H. L., Inciardi, J. A., & Kiley, M. C. (2004). Sex work and "date"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0*(4), 357-385.
- Magdol, L., Moffitt, T. E., Caspi, A., Newman, D. L., Fagan, J., & Silva, P. A. (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Bridging the gap between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8-78.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ercy, J. A., & Tharp, A. T. (2015). Adolescent dating violence in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9*(3), 441-444.
- Rufer, M., Held, D., Cremer, J., Fricke, S., Moritz, S., Peter, H., & Hand, I. (2006). Dissociation as a predictor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outcome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5*(1), 40-46.
- Morgan, W., & Wells, M. (2016). It's deemed unmanly: men's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7*(3), 404-418.
- Shook, N. J., Gerrity, D. A., Jurich, J., & Segrist, A. E. (2000).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verbally and physically abusive coup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1-22.
- Neergaard, J. A., Lee, J. W., Anderson, B., & Gengler, S. W. (2007).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Effects of confiding in religious leaders. *Pastoral Psychology, 55*(6), 773-787.
- Nicodemus, P. D., Porter, J. A., & Davenport, P. A. (2011). Predictors of perpetrating physical date violence among adolescent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1), 123-132.

- Ochberg, F. M. (1988). *Post-traumatic therapy and victims of violence*. New York: Brunner/Mazel.
- O' 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Rickert, V. I., Vaughan, R. D., & Wiemann, C. M. (2002).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date rape. *Current Opinion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14(5), 495–500.
- Roberts, T. (2015).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있는 유혹(한진숙 역, *Pure Desire*) 서울: 좋은씨앗. (원전 1999 출판).
- Russel, D. (1982). *Rape in marriag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Salter, A. C. (1995). *Transforming trauma*. Thousand Oaks, CA.: Sage.
- Shorey, R. C., Sherman, A. E., Kivisto, A. J., Elkins, S. R., Rhatigan, D. L., & Moore, T. M. (2011).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hame pronen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834–1850.
- Shorey, R. C., Zucosky, H., Brasfield, H., Febres, J., Cornelius, T. L., Sage, C., & Stuart, G. L. (2012).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ming: Directions for future interven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4), 289–296.
- Shorey, R. C., McNulty, J. K., Moore, T. M., & Stuart, G. L. (2016). Being the victim of violence during a date predicts next-day cannabis use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ddiction*, 111(3), 492–498.
- Solomon, S. D., Gerrity, E. T., & Muff, A. M. (1992). Efficacy of treatments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empir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8(5), 633–638.
- Stader, D. L. (2011). Dating violence. *The Clearing House: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84, 139–143.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Theobald, D., & Farrington, D. P. (2016). Advancing knowledge about dating violence.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6(4), 225–228.

- Voth Schrag, R. J. (2017). Campus based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A review of study contexts and participants. *Affilia*, 32(1), 67–80.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Row.
- Walker, L. E. (1992). A battered women syndrome and self-defens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and Public Policy*, 6(2), 321–334.
- Webster, V., Brough, P., & Daly, K. (2016). Fight, flight or freeze: common responses for follower coping with toxic leadership. *Stress and Health*, 32(4), 346–354.
- Wright, H. N. (2010). **트라우마 상담법**(금명달, 구혜선 역, *The new guide to crisis and trauma counseling*). 서울: 두란노. (원전 2003 출판).
- Selvi, Y., Besiroglu, L., Aydin, A., Gulec, M., Atli, A., Boysan, M., & Celik, C. (2012). Relations between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dissociation, and cognitive models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6(1), 53–59.
- <http://rima123.tistory.com/336> (2018.3.28.)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cch> (2018.3.28.)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Psychological Trauma
-Centering around psychology of assailant and victim-

Jeon, Joseph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ristian counseling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as a psychological trauma centering around psychology of assailant and victim. This study dealt with the realities and an evil effect of IPV. (The cause of dating violenc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abuse of dating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and a cause of dating violence) The researcher also mentioned the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IPV such as psychology of offender and victim. The researcher discussed biblical understanding of IPV prevention and IPV in Christian counseling, and conclusion(summary, discussion, & sugges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PV is divided into dating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marital violence and child violence). In IPV, it is founded that dating violence eventually leads to family violence. IPV is a psychological trauma that affects the victim seriously. When such violence occurs for the first time, victims of violence should not have violence acceptance, but should form a support group, and report it to them. In other words, the support group means being supported by the power of family, relatives, friend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like a police.

In Christian counseling, IPV must be clearly perceived as a transgression. People should understand that they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Especially intimate relationship (loved one, couple) is a relationship that must be made with love. Date violence is the opposite action of love. Christians should regard loved one as a prospective mate(bride and bridegroom) in their date. A spouse is a helping person, and as a gift of God, one has to believe and respect for biblical, happy relationship.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date violence, couple violence assailant-victim